"올핸 헬멧 벗고 뛸거에요"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3일 금요일 제2[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첫날 2% 넘게 빠진 코스피

문 연 채 난방' 과태료 300만원 2일 오전 서울 명동에서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 직원과 에너지 단속반이 휴대용 온도측정기를 들고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상점을 단속했다.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과 함께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다. 개문 난방 영업행위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겨울철 에너지 사용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스펙> S에 목매지 말고 <SNS> S부터 챙겨라!

3대 취업포털 대표, 먹구름 전망 속 '소셜채용·스펙초월채용' 철저 대비 주문

잡코리아 김화수, 사람인 이정근,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

"현재가 지난 10년 추운 내다봐라."

2014년 갑오년을 맞아 메트로신문이 국내 3대 취업포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올 한 해 취업 시장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이 같은 조언이 공통적으로 쏟아졌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일자리'란 우스갯소리가 회자될 정도로 일자리 구하기가 팍팍한 상황이지만 서둘지 말고 보다 긴 시각에서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셜 채용, 스펙 초월 채용 등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고 대기업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큰 알짜기업에 젊음을 투자하는 현명함을 갖춰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올 한 해 취업 시장에 먹구름이 진하게 낄 전망"이라며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47.1%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기업 취업문은 바늘구멍만큼이나 좁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정근 사람인 대표도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의 일자리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력 등 일부 분야에서는 훈풍이 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신입보다는 당장 업무에 투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력 위주의 수시 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정근 대표도 "불황 탈출을 위해 기업들이 유일하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자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취업포털 대표들은 올해 주목해야 할 취업 트렌드로 '소셜 채용', '스펙 초월 채용' 등을 한목소리로 꼽았다. 김화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채용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자들도 스스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SNS에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대표도 "스펙으로 줄 세우기보다는 구직자들의 시회에 대한 책임 의식 역시관·국가관·기업관 등을 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삼성그룹도 올 하반기 열린 채용을 기조로 채용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직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심 어린 조언도 이어졌다.

이정근 대표는 "한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갈고닦아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을 구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며 "당장의 높은 연봉보다는 스스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 일을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김화수 대표도 "연봉은 다소 적지만 자기 계발이 가능하고 근무 분위기가 좋은 기업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 생활 만족도를 보인다"며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알짜 중견·유망 중소기업에서 꿈과 비전에 도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직자들의 귀를 번쩍이게 만드는 '돌직구'도 나왔다. 이광석 대표는 "구직자들이 더 이상 스펙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며 "취업이 안 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군포 등 수도권 4곳도 전세가율 70% 넘었다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는 지역이 등장했다.

2일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경기도 군포시(70.9%), 의왕시(70.2%), 수원시 영통구(70.5%)와 장안구(70.2%)가 아파트 전세가율 70%를 돌파했다.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의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사례는 많았지만 수도권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2002년 8월 서울 강북구(70.0%)를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전세가율이 70% 아래에서 형성돼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1월만 해도 전세가율이 ▲군포시 69.3% ▲의왕시 69.5% ▲수원시 영통구 69.7% ▲수원시 장안구 68.6%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70%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집값이 비교적 저렴하면서 서울과 가까워 출퇴근이 쉬운 지역 위주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된 상황"이라며 "전세 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전세가율 70% 이상 지역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강북구와 안양시 동안구가 69.1%의 전세가율을 기록, 7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새해 새 출발 '힘찬 다짐'

2014년 갑오년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다양한 시무식 행사가 열렸다. 1. 과천 서울경마공원 실내 승마연습장에서는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기승 복무신고를 했다. 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14 검찰 신년 다짐회' 에서는 직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3. 정홍원(가운데) 넷째 국무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 시무식을 주재했다.

"스티브 유, 벌써 잊었나"

가지 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잊을 만하면 또다시 들려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소식들이 있다. 바로 연예인들의 병역 문제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가수 출신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7)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한국 복귀를 타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달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 소속사인 JC그룹 인터내셔널(대표 성룡)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의 요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가 아니라 입국을 거부당한 이유다. 1997년 데뷔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될 때마다 유승준은 군 입대하겠다고 공언하며 대중의 큰 사랑과 응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으로 도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정부에서 유승준의 해외 활동을 위해 만들어준 '한류특별비자'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법을 악용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판단해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자신을 믿었던 정부는 물론 대중과 팬들을 한순간 바보로 만든 것이다. 단순히 병역 기피가 아니라 그의 이중성이 문제였다. 겉과 속이 다른 유승준이 국내 활동을 생각했다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 혁신 시대적 과제

정홍원 총리 "더 미룰 수 없어"—황찬현 감사원장도 "기본·원칙 세우겠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찬현 감사원장이 2일 열린 시무식에서 공공부문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맞춤형 복지 정착과 4대 사회악 척결, 공공부문 혁신 등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예상되는 갈등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감사원장 역시 "공직사회 곳곳에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비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감사원이 중심을 잡고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국가 재정의 건전성 제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5대 감사 과제로 제시했다. /박선옥기자 mk m@metroseoul.co.kr

"박 대통령, 개각 전혀 고려안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은 경제·안보 중대시기"

청와대가 각종 언론매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각설과 관련해 2일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면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재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연일 언론에 개각설이 보도되고, 경제팀 등 특정 부문 장관들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행정부가 동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청와대는 김행 비서실 대변인이 사표를 내고, 법무부·여성가족부 비서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총리실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각설이 힘을 얻었다. /김민웅기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명동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거리 설명회를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동 간 안철수 "국민 편 가르지 마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해 벽두부터 서울 명동에서 신당 설명회를 갖고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겸해 새해 첫 위원장단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명동에서 신당 설명회를 갖고 '민심 공략'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정치의 근본과 중심에 항상 국민이 서 있고 국민과 함께한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지만 새 정치의 기본 자세라 생각한다"며 "진영·정파 막말 증오·배제 무작위 등으로 나타난 낡은 정치 행태가 새해에는 없어져야 한다"며 새 정치와 기성 정치를 차별화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 국립묘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국민 통합의 차원"이라며 "여전히 편을 가르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기자

계약해지했던 철도 대체인력 2~3개월 운용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긴급 모집한 일용직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던 코레일이 2~3개월 정도 운용한 뒤 계약 해지할 계획이라고 말을 바꿨다.

코레일 측은 2일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라 지난달 29일 우선 채용한 208명의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에 대한 근로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파업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파업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는 코레일의 성급한 '대체인력 채용' 계획 때문에 선량한 구직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후 코레일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됐던 사람들은 앞으로 신규 채용 시 우대하고 인력풀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파업 기간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위해 열차승무원과 기관사 등 모두 660명을 뽑는 모집 공고를 냈고, 이틀 만에 17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 가운데 208명을 우선 채용했다. /김선민기자

3 광화문우체국 집배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거리에서 안전운전을 다짐하며 퍼레이드를 펼쳤다 /연합뉴스·뉴시스

유산 절반 배우자 우선 배분

'상속법' 개정 추진 자녀들 몫은 절반으로 줄어

법무부가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자녀의 몫은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해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9조는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각각 직계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위 의견대로 고치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 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

검찰, '성관계 동영상 협박' 건설업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일 여성 사업가 A씨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A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의 합의서를 받은 윤씨의 지인 김모(47)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원치 않고, 윤씨와 A씨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와 A씨가 간통 혐의로 별건 기소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설득해 '처벌 불원 합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윤씨는 지난해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와 같은 해 12월 12일께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yd@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메이지유신 설계자 료마 탄생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사카모토 료마가 1835년 1월 3일 태어났다. 료마는 일본에서도 벽촌 도사번(고치현)의 하급무사 출신이었으나 조슈번과 사쓰마번의 동맹을 이끌어내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일본이 일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로 재탄생하는 데 불꽃적 공헌을 한 국민적 영웅이다. 소설과 사극 미디어로 더욱 사랑받는 그는 불과 31세의 나이에 암살자에게 살해되었다.

들러리 내세워 나눠먹기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담합 21개 건설사에 1322억 과징금 부과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대부분의 구간을 '나눠 먹기' 식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제재 대상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시공 순위 순) 등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가 8곳이나 포함됐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40억원), 현대산업개발(140억원), SK건설(127억원), GS건설(120억원) 순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로 과태료 1억456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1개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16개 공구 가운데 무려 15곳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였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로 입찰에는 공구마다 각각 2개 건설사업만이 참여했으며,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은 평균 97.56%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y5831@metroseoul.co.kr

화천 산천어축제 내일 개막 '2014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된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축제가 4일 화천천 일대에서 개막된다. 축제를 앞두고 행사 관계자들이 2일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제보' 국정원 전 직원 동료 뒷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했다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를 국정원 직원들을 뒷조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 2명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을 국정원 수사국 직원으로 속이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낼 일이 있다며 비상연락망에 있는 직원들의 주소를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이런 자료가 댓글 의혹 폭로 등 민주당의 선거 기획에 활용됐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정기자 jhj@

'구명보트 밀입국' 시도한 인도네시아 선원 4명 검거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구명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22)씨 등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 남외항 N-4 묘박지에 정박 중인 꽁치봉수망 어선 S호(970t급·대한민국 선적) 선원인 A씨 등은 이날 오전 4시38분께 구명보트를 타고 몰래 배를 벗어났다.

해경은 경비정을 동원해 검문 수색하다가 오전 4시50분께 주변 해상에서 주황색 천막으로 위를 가린 구명보트를 발견하고 안에 타고 있는 A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 재개하나

안전성 용역결과 "상가·아파트에 큰 영향 안끼쳐"
굴착과정 소음·분진 발생 주민 반발 가능성 여전

주민 민원으로 1년 가까이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부산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가 새해에 재개될지 주목된다.

주민이 요구해온 안전성 검토 용역에서 공사로 인해 주변 상가와 아파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시건설본부는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 화명동 감리사무실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인근 주민이 지하차도로 건설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로 주변 아파트와 상가에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뤄졌다.

용역을 맡은 대학토목학회는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굴착용 흙막이 시설이 주변 아파트, 상가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지하차도 경사도를 늘여 굴착 깊이를 줄이고 흙막이 시설을 보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용역 결과로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굴착과 흙막이 시설로 인한 주변 아파트, 상가의 피해 논란은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공사를 발주한 부산시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공사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조적 피해 외에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 소음에 대해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한필파크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설계와 별도로 굴착공사 도중 지반이 침하되는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주민 피해에 대해 부산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는 올해 초 착공했지만 인근 주민이 아파트 균열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해 10개월째 중단됐고 시공사가 공사 방해로 일부 주민을 상대로 재산 압류를 신청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설 자금 1000억원 특별지원

한은 부산본부 6일부터 실시하기로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오는 31일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직원임금 및 원자재대금 결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설자금은 금융기관이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 이내를 해당 금융기관에 연 1.0%의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5억원을 1년 이내로 지원될 방침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으로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부산공동어시장 새해 첫 경매 2일 오전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초매식에 참가한 중도매인들과 수산업자들이 힘찬 손짓으로 경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체험하고 학비 마련하세요

시, 겨울방학 맞이 대학생 취업연수 45명 공모

부산시는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행정 체험과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생 취업연수생 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살고 있는 만 29세 이하(1984년 이후 출생)의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들 연수생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6주 동안 주 5일(월~금요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고 일당 4만240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오는 9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수생 신청을 받은 후 13일 전자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자살 유가족 등 9명은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취업연수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근무 요령, 연수조건, 복무 등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부산시와 시의회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가로수 한눈에 본다

시 화보집 발간 수종·노선별 식재 현황 소개

부산시는 가로수를 수종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노선별로 식재 현황을 소개한 화보 '부산의 가로수'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화보는 지난 5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부산 전역의 가로수 수종과 노선별 식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부산의 가로수에 따르면 부산시 가로수는 왕벚나무 등 36가지 14만4231그루이며 이 중 낙엽수가 88%, 상록수가 12%에 달한다.

또 왕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후박나무, 회화나무, 먼나무, 독일가문비, 메타세쿼이아 등 주요 10가지 수종이 전체 92% 이상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형 녹지정책과장은 "이번 화보는 단순히 부산지역의 가로수 현황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에서 자연과 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누구든 쉽게 가로수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부산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부산보훈청 반부패 청렴서약식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유주봉)은 지난 2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과 함께 반부패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식에서 직원 모두는 부패 없는 보훈 實踐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은행 직원 3분의 1 쫓겨날 것"

한국노총 경남도본부가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이 선정된 데 반발해 대부분 경남은행과 거래하는 조합원 입출금 통장을 전면 해지하기로 하는 등 총력 투쟁 계획을 밝혔다.

배동환 한국노총 경남도본부 의장 등 간부들은 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가 340만 경남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남은행을 BS금융에 팔아넘기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며 매각 발표 철회를 요구했다.

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한다고 했는데 경남은행을 BS금융으로 넘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화하는 것이므로 도민들이 강력히 저항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BS금융이 경남은행 인수 후 직원 완전 고용을 보장한다고 한데 대해 배 의장은 "그것은 달콤한 사탕발림 소리에 불과한 것이며 어느 기업이든 인수 후 1~2년간은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않는다"며 "그 이후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남은행 직원 3000명 가운데 3분의 1인 1000명이 쫓겨날 것이다"고 예상했다.

유통가 키워드 '아웃도어'

수년간 백화점 매출 '효자' · 부산 롯데百 등 19일까지 할인행사

새해에도 지역 유통가의 핵심 키워드는 '아웃도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아웃도어가 백화점 업계의 매출 감소를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뿐 아니라 클러스 매출을 일으키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왔기 때문.

특히 설을 맞아 오는 19일까지의 비겐세일 기간에 방한복에 대한 수요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방한복 수요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매출은 아웃도어가 스포츠의류 신장률을 무려 10% 이상 압도했고, 프리미엄 패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월등한 매출 외형을 기록했다.

이에 방한의류 수요가 집중되는 1월, 새해 첫 세일에 또다시 아웃도어 카드를 전면 배치한다.

이런 추세에 맞춰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은 새해 첫 바겐세일 기간인 2일부터 7일까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패딩류 등 인기 방한의류 이월 상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대형 상품 행사를 집중적으로 배치, 연초부터 매출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먼저 롯데 광복점(1월 2~5일)은 아쿠아몰 10층 문화홀에서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등 총 14개 브랜드가 참여해 '2014년 새해맞이 아웃도어 대전'을 진행한다. 또 '한정 상품전' 및 '일자별 타임 이벤트 (오전 10시30분~12시)'도 기획해 컬럼비아 점퍼 2만원, 밀레 경량다운 5만원 및 다운점퍼, 등산화 등을 특별한 가격에 한정 판매한다.

동래점은 8층 행사장에서 K2, 컬럼비아 등 총 1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신년맞이 아웃도어 대전'을 진행한다. 3일에는 다운점퍼·티셔츠 등을 최대 80% 할인해 한정 판매하는 '복삼품전'을 비롯, 구매 금액에 따라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센텀시티점도 3층 행사장에서 블랙야크, 네파 등 총 1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2014년 스타트 아웃도어 대전'을 열고, 롯데 부산본점도 지하 1층 행사장에서 '라푸마 네파 라이벌전'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상품본부 이호석 아웃도어 선임 상품기획자는 "방한의류 시장에서 아웃도어의 인기는 매년 높아져 업체마다 행사 물량 조달에 곤란을 겪을 정도"라며 "새해 첫 세일에 아웃도어를 가장 사랑하는 부산 시민을 위해 특별 기획한 행사"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8층 노스페이스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겨울 방한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금융 허브' 시대 다가온다

문현금융단지 6월 '위용' · 63층 BIFC 등 완공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 안뜨라가 될 문현금융단지가 오는 6월이면 그 위용을 드러낸다.

1990년대 중반까지 육군 군수사령부 제2정비창 부지였던 문현금융단지는 복합형 랜드마크 건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부산은행 본점,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술보증기금 본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 공사에 들어간 BIFC는 현재 80% 공정으로 6월 완공을 앞두고 지상 63층 규모의 외형은 벌써부터 모습을 갖췄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2만4865㎡ 부지에 전체면적 19만7869㎡로 높이만 289m에 달해 국내 업무용 시설 가운데 가장 높다.

BIFC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6개 공공기관이 입주한다. 또 한국거래소, 농협은행 부산본부, 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금융기관 3곳도 함께 들어간다.

앞서 문현금융단지에 가장 먼저 완공된 건물은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옥으로 2011년 5월 준공됐다.

기술보증기금은 661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본관과 지상 4층 규모의 기숙관으로 이뤄졌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신청사를 완공해 입주를 마쳤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신청사는 대지 8118.1㎡에 연면적 9986.62㎡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1층에는 200㎡ 규모의 화폐전시관과 홍보관이 문을 열어 청소년 등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은행 본점 건물은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오는 6월 말 BIFC와 함께 완공 예정이다.

부산은행 본점에는 대강당, 글래스홀, 갤러리 등 지역문화시설과 업무시설, 옥외 휴게시설, 스카이 가든 등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부산은행은 주변에 친환경 녹지공간을 대거 확보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취득하는 등 친환경 건물로 지을 계획이다.

문현금융단지는 1단계 BIFC 건설과 2단계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완공, 3단계 주거용 오피스텔, 비즈니스 호텔 건립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전체 문현금융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2019년까지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12조7000억원, 고용 창출 효과는 13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부산시는 겨울철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28일까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동절기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이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이 낡고 배선이 엉키거나 가연성 상품이 많은 데다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대형 화재 발생이 쉬운 특성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방안전본부, 지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실시된다.

점검반은 ▲누전차단기·배전반 등 전기안전시설 상태 ▲가스용기 관리·차단기·경보기 등 가스안전시설 상태 ▲시장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벽체 균열 상태와 누수 및 설치가 10년 이상 된 아케이드시설의 노후 상태 ▲공용주차장과 화장실 ▲상인교육장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안전 위험성이 높아 개·보수가 시급한 사항은 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우선 보수할 예정이다. /뉴시스

시립미술관 얀 파브르 '블루의 시간'전

부산시립미술관은 벨기에 출신 작가 얀 파브르의 역사적인 작품 8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회 '얀 파브르: 블루의 시간'을 내달 23일까지 대전시실과 소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블루의 시간'으로 알려진 이 연작은 1986년에서 1992년까지 제작된 작품들이 주를 이루며 모든 작품은 파란색 빅(Bic) 볼펜만을 사용해 종이, 사진인화지, 인견, 나무 등의 표면에 작업한 것이다.

작품 중에는 실제 곤충의 몸통이나 날개를 정교하게 골라주한 것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얀 파브르의 증조부이자 저명한 프랑스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의 글에서 인용됐다.

장 앙리 파브르는 야행성 동물들이 수면 상태로 접어들고 주행성 동물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밤과 낮의 경계의 신비로운 시간대를 연구했다.

'블루의 시간'은 이 시간대를 일컫는 용어로 완벽한 대칭, 완전한 고요, 완전한 포화 상태의 순간, 즉 시간의 경계를 말한다.

이러한 서정적인 시간 개념은 얀 파브르의 작품 세계에서 동물, 얼굴, 오브제 등 갖가지 색채의 표면으로 등장해 온갖 변태(變態)와 소생으로 안도하는 과도기로 그려진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전시관 벽면을 한가득 채운 파란색 그림에서부터 푸른색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푸름으로 가득찬 전시장을 방문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블루의 시간'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고 권했다. /뉴시스

부산경찰 '변호인 접견실' 확대

부산경찰청은 2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과 부산 시내 6개 경찰서는 그동안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영상녹화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운영해왔다.

경찰은 영상녹화실의 시스템상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내용을 녹화할 수 없지만 접견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회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올해 1분기 안에 경찰서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접견실을 만들기로 했다.

metro HongKong

metro Brazil

수천만원 드는 방탄차 수요 366% ↑

최근 브라질 바이셔다 산치스타 지역의 방탄차량 수가 3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범죄불안의식과 가 없어 상대적으로... 가에 적지만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방탄기술협회에 따르면 방탄 차량 비용은 차량에 따라 4만5000헤알(1억 2000만원)에서 7만 헤알까지로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이용 고객은 사업가가 73%, 가수 등 예술가 10%, 판·검사 6%, 정치인이 3%를 차지했다.

metro France

프랑스인들 "경찰보다 헌병이 더 친근"

최근 프랑스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은 경찰보다 헌병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인들은 12만 명의 경찰관과 10만 명의 헌병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헌병에 대해 더 좋은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84%, 경찰에 대해 더 좋은 평가를 내린 응답자 비율은 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5%는 '극한 가까이에 있는 어떤 수사에가 경찰보다는 헌병에게 더 어울린다고 답했다.

중국인들 "1314는 한평생"

"2013→2014년 송구영신 순간에 프러포즈하면 평생 함께한다" 속설에 커플들 대거 몰려

1일 중국 광저우 백운산에서 신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퍼지자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프러포즈하고 있다 /연합뉴스

"10, 9, 8 … 3, 2, 1" 2014년 1월 1일.

초대형 불꽃놀이의 프러포즈로 중국인들이 갑오년(甲午年) 새해의 문을 활짝 열었다. 홍콩컨벤션센터의 대형 LED 광고판에서 10초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숫자 '2014'가 떠올랐다. 새해로 들어서자 건물의 조명과 음악에 맞춰 약 8분간 빅토리아 하버 야경을 무대로 한 불꽃 음악공연이 시작됐다.

홍콩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빌딩 옥상에서는 형형색색 불꽃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불꽃은 침사추이 부근 해안에서 빅토리아 하버 중심으로 뻗어진 뒤 수면으로 떨쳐 나가며 장관을 연출했다.

홍콩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이날 약 38만 명이 홍콩섬과 침사추이 사이에 위치한 빅토리아 하버 주변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만끽했다.

2013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11시부터 홍콩섬의 빌딩 7곳 옥상에서는 15분 간격으로 사업·건강·재물·사랑을 상징하는 은색·녹색·금색·붉은색의 '소원 유성'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유성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한 해의 소원을 빌었다.

중국인들은 이번에 넘김에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했다. '1314'(중국어 발음 이싼이쓰)가 '한평생'을 의미하는 '一生一世'(중국어 발음 이성이스)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많은 남성들은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평생을 같이 하자며 연인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한편 최근 한 네티즌이 2014년에는 '행운의 금요일'이 다섯 개 있다고 소개해 중국 인터넷이 한바탕 떠들썩했다.

이 네티즌은 4월 4일, 6월 6일, 8월 8일, 10월 10일과 12월 12일이 각각 행운의 금요일이라고 주장했다. 4월 4일과 6월 6일 사이, 6월 6일과 8월 8일 사이, 10월 10일과 12월 12일 사이 간격이 행운의 숫자 7의 배수인 63일 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날짜 규칙상 이날들은 매년 같은 요일이 될 수밖에 없다. 2015년에는 '행운의 토요일'이, 2016년에는 '행운의 일요일'이 등장한다는 의미다. 글자와 숫자에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이 발견을 재미있어하며 올해 행운이 따르길 기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Chile

칠레 모아이 석상 바람에 마모 심각

2만5000여 곳의 고고학적 유적지, 모아이 석상 1000여 개, 푸른 하늘과 쏟아지는 별빛.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상 낙원.

칠레의 유명 관광지 파스쿠아섬(이스터섬)은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최근 이 '보물섬'이 각종 위기에 노출됐다는 경보음이 섬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위협은 바로 부식이다. 모아이상을 비롯한 여러 유적물이 대부분 돌로 만들어져 있어 태평양을 휘젓는 비바람에 피해를 입는 것이다.

파스쿠아 고고학 단체의 고고학자 수사나 나오에는 "모아이상은 전부 야외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면서 "매일 비와 바람에 노출돼 표면이 조금씩 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 복원 전문가들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재 위험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많아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부식보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2013년 한 해에만 24건의 화재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했다. 직접적인 그을림뿐만 아니라 화마의 높은 열기가 암석의 풍화를 촉진시켜 500년 수명을 300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외부인은 몰래 들여온 심담수 외래 동식물 역시 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뒤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태평양에 있는 파스쿠아섬은 1888년 칠레 영토로 편입됐으며 인구는 약 4000명이다. 칠레 본토에서 3526km 떨어져 있어 비행기를 타고 5시간을 가야 한다.

/콜브로 구스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IA DAY

1월 7일

치킨버거 반값!

1월 8일

양념감자

~~1,900~~ ₩900

PM 2:00 ~ 10:00

2월 RIA DAY를 기대하세요!

• 제휴카드, 롯데멤버스카드 할인 제외
• 홈서비스 및 일부점포 제외

market index <2일>

코스피 1967.19 (-44.15)
코스닥 496.28 (-3.71)
금리 2.91 (+0.05)
환율 1050.50 (+5.50)

금값 32년만에 최대폭락…"올해 반등"

금값이 지난해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1.50달러(0.1%) 떨어진 온스당 1202.3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금값은 지난해 12월에만 2.8% 떨어졌으며 4분기와 연간 하락률은 9%와 28%를 각각 기록했다. 연간 하락률은 1981년 이후 32년 만에 최대폭이다.

그러나 새해에는 금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홍콩 언론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투자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금값이 올해 1분기에 추가로 하락했다가 회복할 것"이라며 "금을 사려면 올해 초가 적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장밋빛 1월?' 첫날부터 물 먹은 증시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2% 넘게 급락—외인 매도·환율 불안·삼성전자 실적 우려 탓

2014년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하면서 1960선까지 밀렸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2010선을 사수하며 한 해 증시를 마무리했으나 올해 첫 거래일에 맥 없이 무너졌다.

시장에서는 이날 급락의 원인으로 외국인 매도와 함께 환율 불안,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 등을 꼽았다. 외국인이 매년 1월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흔들리고 있다.

새해 첫 장세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주식 농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새해 개장일 주가 흐름이 연간 주가 향방을 결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코스피는 지난해 말 종가보다 44.15포인트(2.20%)나 급락한 1967.19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3.71포인트(0.74%) 내린 496.28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장중 8000계약에 육박하는 코스피200 선물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현물에서도 외국인들은 큰 폭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투자자들도 매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율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장중 1050원 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등 원화 강세가 심화됐고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100엔당 1000원 선이 무너지며 엔저 공포가 확산됐다.

이런 환율 불안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형 수출주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져 이들 종목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4~5%대 급락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은 4분기 영업이익으로 9조원대를 전망하나 한 외국계 기관에서는 8조원대까지 낮추기도 했다.

새해 개장일 주가를 보면 그해 증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우려를 더 키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새해 개장일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 연간 주가도 대체로 상승했다. 이 기간 개장일 지수 등락률과 연간 등락률 방향성은 2002년, 2005년, 2011년의 3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일치했다.

가령 2004년과 2006년 개장일 코스피는 각각 1.30%, 0.72% 상승했고 연말엔 각각 10.51%, 3.99% 올랐다.

최근 2012년과 2013년 개장일 코스피는 각각 0.03%, 1.71% 상승했고 연간으로는 9.38%, 0.72% 올랐다.

반면 금융위기로 주가가 하락한 2008년 개장 첫날 코스피는 2.30% 하락했으며 연말에는 40.73% 급락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불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실적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려가 나왔었고 환율 부담도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면서 "새로운 악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과한 반응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호기자 kjkim@metroseoul.co.kr

뉴스&뉴스

견인중 車 사고 보험금 지급

● 견인 중에 발생한 차량 사고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차동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차를 밀던 사람이 깔려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 과정, 사고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 가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 급감

●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이 불과 2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27.8%나 줄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32만 계약으로 전년(740만 계약)보다 55.1%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11년 하루 평균 거래량인 1584만 계약의 21%에 불과한 규모다. /김민지기자

환호와 비명 오간 하루 2014년 증시 개장 첫날인 2일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 탓에 44.15p(2.20%) 내린 1967.19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왼쪽)과 장마감 직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오른쪽). /연합뉴스

생필품 31개 품목 이달부터 물가공개

밀가루와 과자, 휴지 등 31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가 이달부터 공개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달 중 31개 생필품 가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다.

물가감시센터는 9개 유관 소비자단체를 활용해 서울시 25개 구에서 밀가루와 설탕, 고추장, 과자, 라면, 즉석밥, 우유, 분유, 콜라, 커피, 아이스크림, 어묵, 휴지, 세제 등 생활필수품·가공식품 31개 품목, 90개 제품의 가격을 매달 한 번씩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업소별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는 해당 품목의 주요 원재료 시세 및 환율 변동, 평균 원재료 가격과 출고가, 시장가격 비교 등 원가 분석 정보를 제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5년 가입땐 240만원 소득공제 되는 펀드

올 3월 출시될 전망

이르면 3월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총급여액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재형저축은 종합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소장펀드는 세제 혜택 상품인 만큼 근로 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장펀드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매년 600만원(분기별 2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약 39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장펀드의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 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 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소장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현정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겸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한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자센터 (02)721-9885

"위기의 해…혁신의 해…기회의 해"

재계 신년 하례식 달군 주요 그룹 오너들의 말말말

재계에서는 2014년 '청마의 해'를 위기의 '혁신 및 기회'의 한 해로 내다봤다. 2일 삼성·현대기아차, SK, LG, GS 등 국내 주요 그룹사의 신년 하례식이 일제히 개최된 가운데 각 그룹사 오너들은 올해를 위기의 해로 규정하고 혁신과 도전을 통해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만만치 않은 새해 경영환경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해 최대 성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인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신경영'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위기론'을 설파했다.

이 회장은 "신경영 20년간 글로벌 1등이 된 사업도 있고, 제자리걸음인 사업도 있다. 선두 사업은 끊임없이 추격을 받고 있고 부진한 사업은 시간이 없다"며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5년 전, 10년 전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와 문화는 과감하게 버리자"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기술 융복합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삼성家의 미소 이건희(왼쪽) 삼성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년하례식을 마친 후 장녀인 이부진(가운데)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그 뒤로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경영 환경은 위기 그 자체"라며 "원화 강세와 경기 회복 지연 등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며 "선도 기업과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고, 후발 주자들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임직원 모두가 지금이 위기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는 기술은 '유연한 변화'

그룹 오너들은 이런 경영위기 상황에서 혁신을 통해 체질을 바꿔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며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사업 구조의 혁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기술 혁신, 글로벌 경영 체제를 완성하는 시스템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올해 자동차 부문이 글로벌 시장에서 786만 대를 생산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며 "글로벌화된 사업장과 관리 체계를 혁신해 조직의 효율과 역동성을 확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본무 LG 회장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모든 경영 활동을 되짚어 봐야 한다"며 "우리의 주력 사업과 신사업, 일하는 문화를 돌아보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허창수 GS 회장은 "적지 않은 기업이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뼈를 깎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기본 실력과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균기자 kss1@metroseoul.co.k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불황일수록 기회 도전해야만 산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5년 전, 10년 전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와 문화는 과감하게 버리자"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제도, 관행을 털어내자"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불황기일수록 기회는 많다"며 "넘보다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인재를 키우고 도전과 창조의 문화를 가꾸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공헌과 자원봉사는 더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재영기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역량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준비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2014년 그룹 경영 방침을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 기반 강화'로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전 임직원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올해를 전 부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장과 관리 체계를 혁신해 조직의 효율과 역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 구조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재정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선행 기술 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욱재기자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그룹 가치 300조 행복경영 이끌것"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2014년은 '따로 또 같이 3.0'을 통한 가치 창출 이란 경영 방침에 따라 그룹 가치 300조원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SK 성장을 주도했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밤낮을 안 가리고 열정을 바친 최태원 회장의 경영 공백은 아픔이 더했다"면서 "2014년은 그룹 가치 300조원 달성을 위해 관계사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위원회는 그룹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의 행복을 출발점으로 행복경영을 실천해 SK 고유의 추구 가치인 '이해관계자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재영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사업 1등 목표 고객 입장 최우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일 "앞으로 경영 환경은 위기 그 자체"라며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 회장은 아울러 "주력 사업에서는 고객이 선택하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선도 상품으로 반드시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며 "신사업들은 1등을 하겠다는 목표로 철저하고 용기 있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 회장은 "항상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끝까지 치열하게 실행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재영기자

허창수 GS그룹 회장

"그룹 출범 10년째 내실 강화 힘쓸것"

허창수 GS 회장은 2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올해는 GS가 출범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라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매출 규모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사업 구조의 고도화를 포함해 내실의 측면은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영기자

Samsung GALAXY Note 3 로즈 골드 출시

'갤노트3' 로즈골드 모델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3 로즈 골드 모델을 통신 3사를 통해 4일부터 국내시장에 선보인다. 갤럭시 노트3 로즈 골드는 측면 테두리를 중심으로 뒷버튼, 스피커, 후면 카메라 부분과 S펜에 로즈 골드 색상을 적용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제품으로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3 로즈 골드 출시를 기념해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로즈 골드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

세 수장의 진검승부

Issue&View

이통 3사 CEO의 새해 숙제

/이재구기자 yi4038@metroseoul.co.kr

황창규 KT 회장 후보의 등장으로 2014년 이동통신 시장 최고경영자(CEO) 구도가 새롭게 재편됐다.

지난해 통신 시장은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LG유플러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는 1위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선보이겠다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도약을 선보이겠다는 황창규 KT 회장 후보, 올해도 지난해의 선전을 이어가겠다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각각의 경영 마인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 바뀐 KT, 재도약 여부 주목

KT는 이석채 전 회장이 사퇴한 후 후임 인사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다. 황 회장 후보는 27일 KT 주주총회에서 정식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KT는 황 회장 후보가 정식 취임하면 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이석채 전 회장 측근을 물러나게 할 만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황 회장 후보가 회장 취임 이후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느냐로도 이어질 방침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최근 수년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삼성전자 출신 인사를 대표로 영입하면서 내부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황 회장 후보가 어떻게 조직을 흐트러지지 않게 수습하고 매출 감소, 가입자 이탈 등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SK텔레콤, 마케팅 강화 조직 개편으로 재도약?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광고, 디바이스, 고객 서비스 등을 담당했던 서비스 혁신 부문을 마케팅 부문과 통합해 고객 기지 경영에 기반한 마케팅 전 영역에서의 통합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중심경영실을 사업총괄 직속으로 편제해 최고의 고객 가치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현장 중심 경영 활동 강화와 투자회사 조직 역할도 확대를 시도했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2014년을 "미래 30년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규정하고 "산업 간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올해 관건은 광대역 LTE

지난해 활짝 웃을 수 있었던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올해도 웃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올해 성공 여부는 광대역 LTE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1.8GHz 대역을 할당받은 경쟁사와 달리 LG유플러스는 2.6GHz를 할당받았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는 경쟁사에 비해 광대역 LTE 서비스 제공 시점에서 3개월이 뒤처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우리는 큰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광대역 LTE 전국망 구축과 함께 세계 최고 속도의 LTE를 최초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 '연탄 나눔 봉사' 시무식 2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임직원들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시무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보기 전 구매목록 작성하라

전순이 주부 경제학

주부 9단들은 장보는 습관부터 다르다. 올해부터라도 알뜰살뜰 장보기에 도전해 보자.

① 구입할 물품은 메모해 가기. 우선 장보기 전 냉장고 속에 남은 재료부터 체크한다. 그런 다음 마트에서 구입할 물품을 꼼꼼하게 메모한다. 쇼핑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장보기를 하면 정작 사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② 밥은 든든하게 챙겨 먹고 장보기.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보면 불필요한 쇼핑을 하기 쉽다. 실제로 주부들이 배고플 때 조리 행위를 하면 약 90% 이상 효과를 본다고 한다. 시식 코너에서 충동구매를 줄이려면 배고픈 땐 장보기를 피하는 게 좋다.

③ 전단지에 표기된 할인 제품들은 꼭 확인한다. 마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전단지다. 조금 귀찮더라도 전단지에 적힌 가격을 메모하고, 전단지에 표기된 할인 가격과 동일한지 확인하자. 더욱이 같은 제품이라도 크기와 중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중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면 손해를 보기 쉽다.

④ 장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장보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사야 할 물건들만 재빨리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특히 사야 할 물건이 많지 않을 때는 카트 대신 바구니를 이용하자. 마감 시간에는 떨이 제품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⑤ 포인트 카드나 제휴 카드 결제는 필수다. 쇼핑하고 나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대형마트별 제휴카드를 활용해 보자.

⑥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하기 쉬운 채소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종류별로 분류해 냉장 보관하면 된다. 감자와 양파 등은 망이나 상자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고기류는 한 번 먹을 양씩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이경지기자 ming@

MS 광화문 신사옥 50일만에 6000명 방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신사옥이 공개 50일 만에 방문자 수 6000명을 돌파했다.

한국MS는 지난해 11월 12일 공개한 광화문 신사옥 '프리스타일 워크플레이스'가 방문 기업 155곳, 총 방문자수 6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한국MS 신사옥은 임직원의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직원 고정 배상 등을 없앤 파격적인 구조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근무 환경 벤치마킹을 위해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한국MS 신사옥 탐방 문의가 줄을 이었다.

한국MS 김 제임스 사장은 "직원들의 협업과 업무 성과를 북돋는 근무 공간은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희기자

'우투증권 패키지' 놓친 KB 새 매물 사냥

KB금융지주가 올해 증권사 인수에 다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비은행 분야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증권, 생명, 자산운용 등을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내실 성장을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우투증권 패키지 인수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농협금융지주에 고배를 마셨다.

우투증권 패키지는 우투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을 묶은 1+3 방식의 매물이었다.

KB금융은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다른 우량 증권사 인수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이 대우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 등 매물로 나오는 증권사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가 매물로 나오면 인수를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우투증권 패키지 인수에 성공한 농협금융은 매도자 측인 우리금융지주와 막판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현정기자 hkim@

자동차 판매 내수 '후진' 해외 '전진'

국내 완성차 2013 성적표

2013년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수 부진을 수출에서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내수 64만865대, 해외 408만291대 등 전년보다 7.3% 증가한 472만1156대를 판매했다. 내수시장 침체로 국내 판매는 줄었지만 해외 공장을 중심으로 한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체 판매는 늘었다.

차종별로는 아반떼가 글로벌 시장에서 94만2442대가 팔려 한국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어 엑센트 67만9871대, 투싼 53만4814대, 쏘나타 47만5400대, 싼타페 25만3309대 등이 현대차 판매를 견인했다.

기아자동차는 내수 45만8000대, 해외 236만9321대 등 전년 대비 3.9% 증가한 282만7321대를 판매했다. 기아차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은 내수 4만5358대, 해외 36만2229대 등 총 40만7587대가 판매된 스포티지R이 차지했다.

한국GM은 내수 시장에서 총 15만1040대를 판매하며 2002년 회사 출범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스파크가 6만969대 팔렸고, 캡티바는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쌍용자동차는 내수 6만3970대, 수출 8만1679대(CKD 포함) 등을 포함 총 14만5649대를 판매해 지난 2002년 이후 연간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뉴 코란도 C를 포함한 코란도 패밀리 브랜드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0만7706대를 판매해 전체 판매의 73.9%를 차지하며 판매 상승세를 이끌었다.

르노삼성은 내수 6만27대, 수출 7만983대 등 총 13만1010대를 판매했다. 내수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고 수출은 24.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내수에서는 SM3와 QM5의 판매가 늘었고 수출에서는 SM5의 선전이 돋보였다.

현대차는 올해도 시장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차 및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내수 판매 견인에 힘쓰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4년 판매 목표로 국내 68만2000대, 해외 421만8000대를 더한 총 490만 대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 판매 실적과 비교해서는 3.8% 늘은 것이다.

/양성운기자 fermn6@metroseoul.co.kr

재계 화두 '고속 승진'

고속 승진이 올해 재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67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인사에서 고속 승진 인사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3.7%가 '있다'고 답했다.

고속 승진 직원은 연공 서열보다 평균 2.7년 빠르게 승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 승진을 단행한 이유로는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서'(56.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큰 성과에 대한 보상 지원에서'(26.8%),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서'(23.3%), '최고경영자(CEO)의 지시가 있어서'(12.3%), '해당자의 소속 부서 정비 차원에서'(5.5%)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속 승진자의 성별 비율은 평균 77대23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직급별 승진 이유는 다소 달랐다. 관리자급으로 고속 승진을 결정할 때는 '업무 성과'(43.9%), '소속 부서 내 역할 기여도'(26.8%), '리더십'(7.3%), '부서 특성 및 상황'(4.9%)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반면 주임~대리급 실무자는 '업무 성과'(33.3%) 이외에 '성장 가능성'(14.8%), '애사심과 근속의지'(14.8%), '소속부서 내 역할 기여도'(14.8%) 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김근하기자 kim.gh@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10→20년

입주민 선정기준도 완화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입주민 선정 규제 등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민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으로 연장했다.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있어 임대 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의 단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선정 자율권도 부여했다. 시·군·구청장이 일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민을 선정하도록 한 것.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층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우선 대학생 입주 대상을 확대. 현재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같은 소재지여도 섬 지역에 사는 대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납한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재공급받으려면 당초의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돼 신규 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중에서만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갱신 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지역 제한이 사라진다.

/박선옥기자

백화점 대대적 할인 "이참에 사자" 북새통 주요 백화점이 일제히 새해 첫 세일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문이 열리자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몰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퇴진 압박 커지는 쌍용건설 회장

이사회 유임 희망 불구 노조 사퇴 탄원서 제출하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김석준(사진)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유임을 희망하는 이사회에 노조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선 것. 노조에서는 김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각 부서별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6일) 김석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한다.

애초 쌍용건설 이사회는 지난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김 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김 회장이 누구보다 경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데다 해외 네트워크가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의 해외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발주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비대위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에서의 입찰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공사마저 타절(공사 중단)될 수 있다"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 네트워크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고 [illegible]했다.

비대위는 또 "두 번의 워크아웃에 이어 법정관리까지 이끈 회사 대표를 다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법정관리 다음은 파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반드시 쌍용건설 노조와 함께 심문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2월 31일 사측에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을 지고 김 회장을 포함해 전 임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성한 쌍용건설 노조위원장은 "김 회장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순서"라며 "법원에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김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막기 위해 쌍용건설 본사, 법원 앞 등에서 시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so@

8개 시·도 월세가격 9개월 연속 하락세

월세 전환 물량의 꾸준한 증가와는 달리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월세 가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8개 시·도 월세 가격이 전월 대비 0.2% 내려 9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월세 가격도 0.2% 빠졌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모두 수요 부진과 공급 적체 영향으로 전달보다 0.2%씩 하락했다.

지방광역시(-0.1%)는 대전이 세종시 2단계 이전에 따른 일시적 이주 수요 증가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그 외 모두 0.1%씩 내렸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0.0%)을 제외한 단독주택(-0.2%), 연립 다세대(-0.2%), 아파트(-0.1%)가 내림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단독주택이 -0.3%로 낙폭이 가장 컸고, 지방에서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가 -0.1%로 월세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월세 이율은 8개 시·도가 0.81%로 전달과 같았고, 수도권은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0.79%로 조사됐다. 인천·광주·울산이 각각 0.89%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 강남 11개 구가 0.73%로 제일 낮았다.

/박선옥기자

퍼즐게임 속 퀸카·킹카 떴다

넷마블의 '두근두근 퐁퐁' 소개팅앱 기능 넣어 재미

모바일게임이 이성을 소개해 주는 '소개팅 앱'의 기능을 흡수했다.

CJ E&M 넷마블이 출시한 모바일 퍼즐게임 '두근두근 퐁퐁'은 라인을 연결해 제거하는 퍼즐게임으로 하루 최대 3명의 이성 친구를 소개받아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소개받은 이성에게 친구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면 게임 친구가 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다. 게임 친구가 되면 선물과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활발하게 교류할수록 게임에서 더 많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싸이월드 등에서 익숙한 '투데이 랭킹' 기능을 탑재, 이용자의 인기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남녀 각각 5명은 '오늘의 킹카퀸카'로 선정돼 캐시를 지급받는다.

게임 방식도 간단하다. 간단한 터치로 스테이지마다 주어진 개수만큼의 라인을 좌우로 밀어 연결하고 제거하면 된다. 쉽고 직관적인 게임성에 '캔디 풍'의 그래픽이 더해져 아기자기한 게임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넷마블은 '두근두근 퐁퐁' 출시를 기념해 6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접속만 해도 아이템을 지급하고, 계정 레벨을 달성한 모든 이용자에게 코인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포코팡·서든어택…더 즐거운 '접속'

게임업계가 신년맞이 이벤트를 잇따라 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 퍼즐게임 '포코팡' 신년맞이 로그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6일까지 매일 접속만 하면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받는 것이다.

3일에는 시간 추가 아이템과 폭탄 파워업 아이템이 각각 4개씩, 4일에는 친구 돌풍 소환과 콤보버 아이템이 각각 5개씩 제공된다. 5일에는 왕 아이템, 이벤트 마지막 날에는 다이아몬드가 5개 지급된다.

넥슨은 1인칭 총싸움게임(FPS) '서든어택'에 유령을 신규 콘텐츠 '투명인간'을 최근 공개했다.

투명인간은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전투를 펼치는 신규 서브 미션 모드로서 레드팀은 투명인간이 되어 제한 시간 동안 권총과 근접 무기, 소수 수류탄만을 이용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메이플스토리'는 겨울 시즌 두 번째 콘텐츠인 여섯 번째 영웅 '은월'을 선보였다.

엔트리브소프트는 인기 온라인 농구게임 '프리스타일'의 미션 달성 새해 이벤트를 23일까지 진행한다. 첫째 주 미션은 점수 500점, 2주째 미션은 리바운드 300개, 3주째 미션은 어시스트 300개로서 미션을 달성하면 A급 아이템을 증정한다.

/한용희기자 un@…

'억'소리 나는 게임계 별들

남성유저 많은 '에오스'는 다비치 강민경 홍보모델로
中 진출 '블레이드 소울'은 한류특급 소녀시대 내세워

소녀시대, 미쓰에이, 2PM, 엑소, 강민경(사진), 걸스데이, 권리세….

연말 방송국 시상식에서 상을 탄 연예인의 이름이 아니다. 최근 잘 나가는 온라인, 모바일게임을 알리는 홍보모델이다.

톱스타들이 속속 게임 산업의 품에 안기고 있다. 화장품, 술, 자동차 광고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연기자, 연예인들이 게임 상품의 전면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NHN엔터테인먼트의 MMORPG '에오스' 홍보모델로 발탁된 다비치 강민경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경우다.

MMORPG는 10대 후반에서 30대인 남성의 비중이 크다. 이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대표 여성 연예인이 강민경이다. 강민경은 '에오스걸'이라는 닉네임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게임 전용 화보를 별도로 촬영하는 등 남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대작 MMORPG '블레이드&소울' 중국 서비스를 위해 투입한 소녀시대는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이 게임은 한국에서도 점유율 톱5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만큼 중국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큰 편이다. 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녀시대를 노우미로 발탁했다.

당초 엔씨는 판빙빙, 조미, 장쯔이 등 중국 1급 여배우를 홍보모델로 검토했지만 현지 배급 업체인 텐센트가 오히려 소녀시대를 적극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엔씨 관계자는 "현지 시장을 잘 아는 텐센트에서 국내 연예인을 선호해 놀랐다. 소녀시대를 사랑하는 중국 팬의 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몸스타는 사실상 몸값으로 결정된다. 그만큼 국내 게임 산업의 덩치가 커졌고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보통 A급 연예인을 CF 모델로 6개월 정도 활용하려면 3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하려면 매출이나 수익 측면에서 중견기업, 그것도 상위 레벨 이상은 돼야 한다.

부름을 받는 연예인 입장에서도 게임사와의 계약은 남는 게 많은 장사다. 게임의 주 소비층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젊어 인지도 추가 상승은 물론 충성적인 팬을 좋은 시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첨단 IT 기술과 장비가 모여 탄생한 게임 상품의 특성상 이를 홍보하는 모델은 '트렌디'하고 '핫'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열혈강호2' 몬스터 사냥꾼 모여!

게임 포털 엠게임의 액션 MMORPG '열혈강호2'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아 다음달 6일까지 풍성한 이벤트를 연다.

몬스터 사냥, 스크린샷 등록, 1주년 축하 메시지 작성 등 열혈강호2 유저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구성됐다.

먼저 몬스터 사냥 이벤트인 '몬스터 잡고! 대박 행운 잡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게임 내 전 지역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를 처치하면 교환권이나 응모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교환권과 응모권의 개수에 따라 게임 아이템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케이크 교환권, 영화 예매권 등 풍성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 몬스터 사냥 시 획득한 조각 케이크 아이템을 10개 모아 변사도우미 보조캐릭터(NPC)를 찾아가면 생명력 회복 및 내기, 요기 회복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열혈강호2의 1주년을 기념하는 스크린샷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있는 1주년 축하상자 아이템을 선물하며 채팅창에 '/축하'라고 입력한 모든 유저에게 공격력 강화 버프 혜택을 제공한다.

/박성훈기자

넥슨 "불법 프로그램 꼼짝마"

넥슨이 '불법 프로그램 클린 캠페인'을 진행한다. 넥슨과 넥슨네트웍스는 2014년 새해를 맞아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프로그램 클린 캠페인'을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게임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겨울방학 기간부터 ▲게임 모니터링 ▲사용자의 비정상적 행동 패턴 분석 ▲불법 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제작사 및 유포자 제재 ▲작업장, 프리 서버 등 불법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해 게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FIFA 온라인 3',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영웅전',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바람의나라' 등 넥슨의 인기 게임들이 참여한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평생 공짜' 효행 이벤트

파나소닉코리아는 최고급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평생 대여하는 '5대 웰빙 가족을 찾아라' 신년맞이 효행 이벤트를 31일까지 연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별도로 파나소닉코리아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확인된 5대 가족에게 온열 마사지, 지압 마사지, 보디 스트레칭 등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적용한 10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리얼프로 EP-MA73'을 효도 선물로 평생 무상 대여한다.

1세대 양친이 모두 계신 경우에는 추가로 실내 피트니스 승마기구 조바(모델명 EU7805)를 함께 제공한다. 제품 운송 및 설치, 무상 서비스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파나소닉코리아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e메일(pr_contest@kr.panasonic.com) 또는 서면 접수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파나소닉코리아 본사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겨울 저염식단으로 군살 '쏙쏙'

옷을 몇 겹이나 껴입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감행하고 있다. 계절과는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 또는 예쁘고 멋진 옷을 입기 위해 미적 차원에서 자기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운 겨울에 체중 감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운동 20%, 식이요법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고구마-닭가슴살-과일 등 원푸드 다이어트만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일반식으로 식단을 바꾸게 됐을 때 다시 체중이 불게 되는 '요요현상'이 오기 쉽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먼저 해당 식단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100% 요요현상이 찾아오는 다이어트,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더욱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요즘 들어 건강을 해칠 염려도 없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다이어트인 '저염식 다이어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염식 다이어트란 하루에 세끼 모두 저염식 식단으로 챙겨 먹기 때문에 허기가 져 신경이 예민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고 영양도 골고루 챙길 수 있다. 최근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가 대두되는 이때 바람직한 웰빙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황영일기자

'다이어트 작심' 도우미 짠~

스페셜 K 몸매관리 앱 칼로리량 표시된 밥그릇 트레이너 기능의 시계 등

다이어트와 금연과 같은 새해 다짐은 매년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포기하기 쉽고, 그렇다고 비싼 헬스장 등록이나 금연 상품을 구매하기는 부담스럽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들을 위해 동기부여를 해주는 똑똑한 도우미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켈로그의 '마이(My) 스페셜 K 플래너' 애플리케이션은 나만의 식단과 마이 보디그래프,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이 워킹 등 맞춤형 몸매관리 플랜을 제공해 더욱 체계적으로 몸매관리를 도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도자기가 최근 출시한 식사량 조절 도자기 '칼로리2500'은 현대인의 하루 열량 섭취 권장량 2500㎉에서 모티브를 얻은 제품이다. 기존 둥근 형태의 그릇 모양을 오목하게 변형해 적은 용량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밥그릇 내부에 300㎉, 200㎉, 150㎉ 용량이 각 위치에 새겨져 있어 먹는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디다스의 스마트 워치 '마이코치 스마트런'은 개인 코칭 기능이 탑재돼 사용자가 개인 트레이너 없이도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심장박동은 물론 사용자 신체 상황에 따라 시계 화면과 헤드폰을 통해 속도 조절이나 다양한 트레이닝 코칭을 받을 수 있고, 마이코치닷컴에서 상세한 훈련 기록을 확인하고 새로운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황영일기자 hyi@metroseoul.co.kr

이하 션·아들 하랑 '빈폴키즈 신학기 화보' 찰칵 2일 삼성에버랜드 패션부문 빈폴키즈가 가수 션과 그의 큰아들 하랑이 함께 한 '2014년 신학기 화보'를 공개했다. 실제로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하랑이는 이번 화보에서 고급스러운 스웨터와 산뜻한 체크 셔츠, 치노 팬츠, 책가방으로 감각적인 패션을 선보였다. /빈폴키즈 제공

새해엔 패션 좀 바꿔볼까

연초 의류 할인행사 줄이어

패션업체들이 연초부터 시즌오프를 단행, 고객 잡기에 나선다.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은 2일부터 제품 소진 시까지 '아우터 특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다운·퍼 등 겨울 아우터류를 50% 할인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글로벌 아웃도어 비비올리비아의 제품도 함께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2월 28일까지 올 겨울 신상품을 포함해 남성복, 여성복, 액세서리 등을 최대 50% 할인하고, 로가디스는 스웨터를 최대 50%, 나머지 품목은 40%까지 싸게 판다.

라코스테는 이달 말까지 시즌오프를 실시, 패딩·코트·캐시미어 니트 등 2013년 가을·겨울 제품을 30% 저렴하게 선보인다. 행사는 라코스테 및 라코스테 라이브 전 매장과 온라인 숍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신세계사이먼은 여주와 파주에서 운영 중인 프리미엄아웃렛에서 겨울 시즌오프 행사를 펼친다.

여주 아웃렛에서는 19일까지 마크 제이콥스 2012년 가을·겨울 잡화와 의류를 각각 70%, 60% 할인한다. 파주 아웃렛은 3~16일 토리버치 2012년 가을·겨울 가방과 신발을 최대 60%, 의류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박지원기자 trust@

쇼핑하러 간 일본, 온천에 반해 재방문

일본을 찾는 국내 여행객들은 '쇼핑'을 하러 방문했다가 '온천'을 즐기기 위해 다시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정부관광국이 운영하는 비짓재팬 코리아 PR사무국이 최근 1년에 2회 이상 일본을 방문한 20~4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 여행의 목적으로 쇼핑이 1위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어 먹거리와 온천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을 다시 방문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겨울 온천'(54.5%)이라는 응답이 1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럭셔리 온천 숙박 여행'(39.5%), '주말 온천과 미식 여행'(39%) 등이 상위권에 올라 관광객들은 온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준 높은 서비스와 깨끗한 거리 등 일본 고유의 분위기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지로서 일본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는 '정성스러운 서비스'(51%)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청결함'(50%)과 '친절한 사람들'(48%)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3명 중 2명이 주말을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다고 답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특성도 일본을 자주 찾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원기자

'시장형 실거래가' '리베이트와의 전쟁'에 한숨

일괄 약가 인하 이후 난항 지속된 제약업계 올해도 '암울' 전망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약업계는 2014년 한 해도 순탄하지 못한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월 재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정책 등으로 험난한 한 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약가제도와 강력한 리베이트 정책으로 어려움 지속될 듯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정부의 약가제도,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 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10년 10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후 2012년 2월부터 이달까지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

제약업계는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정부가 예상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 재시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많이 팔리는 의약품의 약가를 낮추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강화돼 대형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매출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

상위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재시행되는 2월부터 매출이 줄면 올해 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리베이트 압박 여전해

이와 함께 정부의 리베이트 정책 역시 제약업계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동아제약,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을 비롯해 지난해에도 제약사 전반에 걸쳐 리베이트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의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이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는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경우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일시 정지시키고 같은 약으로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적발당하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여름 시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리베이트 규제마저 강력해지면 작년만큼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발표한 제약업계 지원 방안도 기대에 못 미쳐 제약업계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JW홀딩스 떡 나누고 덕담 건네고 박구서(왼쪽) JW홀딩스 사장을 비롯한 각사 사장단이 지난 2일 시무식에 새해 처음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신년 기념 떡을 나눠주며 덕담을 건네고 있다. 이날 JW중외그룹은 이종호 회장, 이경하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시무식을 갖고 'JW 웨이(Way)'에 입각한 원칙 경영'을 2014년 경영 방침으로 확정 발표했다. 또 총 [illegible]명의 그룹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JW중외그룹 제공

"신약 개발·글로벌 진출·투명 유통"

제약업계 수장들 신년 포부

제약업계가 새해를 맞아 2014년 포부를 밝혔다. 제약단체 수장들은 특히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 등을 강조하며 2014년을 재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제약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 그리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정부의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회원사들과 함께 제약업계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역시 적극적인 R&D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R&D가 뒤따라야 하며 멀리 내다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신약 개발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올해 포부를 밝혔다.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토로했다. 황 회장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물론 약계 전체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새해를 맞이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힘을 합쳐 현안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일조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직원들 결혼기념일마다 손편지 쓰는 CEO

서크릿 노트

오츠카제약 문성호 사장 '온기 넘치는 훈훈 리더십'

얼마 전 친분이 두터운 지인들로부터 손으로 직접 쓴 연하장을 받았다. 스마트폰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e메일·채팅 등 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보다 컴퓨터 키보드와 휴대전화 키패드가 익숙해진 터라 무척이나 감회가 새로웠다. 그리고 손편지를 언제 썼는지 기억을 곱씹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한국오츠카제약 대표이사 문성호 사장이다.

문 사장은 업계에서 직원들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최고경영자(CEO)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손편지 때문이다. 매달 초 문 사장은 다른 업무보다 결혼한 직원들의 결혼기념일을 먼저 확인한다. 그달에 결혼한 직원에게 손으로 쓴 축하 편지와 와인을 결혼기념일 선물로 건네주기 위해서다.

기껏해야 편지와 와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손편지와 선물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위엄과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사회 풍토 속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정성 들여 쓴 편지를 건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문 사장은 결혼을 앞둔 직원의 가족과 반려자를 초대해 직접 식사를 대접하기도 한다. '내가 내리고 있는 부하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뜻이 숨어있는 것.

문 사장은 또 회사 차원에서 전 임직원에게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금연 캠페인, 절주 캠페인을 활성화해 직원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고 있다. 매년 1회 직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런 문 사장의 마음을 담은 행사도 열렸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2013년 오츠카 송년의 밤'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임직원 및 가족 약 7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 사장은 이벤트존, 축하 공연, 장기자랑,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는 문 사장의 손편지를 받는 직원보다 행복한 이들이 있을까.

/황재용기자

뉴스 & 뉴스

한국화이자 사업구조 재편…이동수 사장 연임

● 한국화이자가 글로벌 화이자의 조직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사업 구조를 '혁신 제약 사업부문', '이스태블리쉬트 제약 사업부문', '백신 항암제·컨슈머 사업부문' 등으로 재편됐다. 또 이동수 한국화이자 사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아 대표직을 연임하게 됐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시장의 혁신 제약 사업부문도 총괄하게 됐다.

대웅제약 '임팩타민' 100억 달성 축하 이벤트

● 대웅제약이 최근 본사에서 '임팩타민 매출 100억원 달성 기념 축하 이벤트'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임팩타민이 새겨진 기념 떡 1000개를 제작해 나눠 먹으며 100억원 달성을 자축했다. 2007년 출시된 임팩타민은 스트레스와 피로로 비타민 B가 급격하게 소모되는 현대인을 위한 영양제로 발매 5년 만에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한미약품 '한미부인회' 자선기금 3000만원 기부

● 한미약품은 지사의 임원 가족 모임인 한미부인회가 연말 바자회를 열고 불우이웃 돕기 자선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자회에서는 의류, 신발, 인형, 아동용품 등 임원 가족들이 기증한 물품 1000여 점이 판매됐으며 바자회를 통해 3000만여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이 기금은 한미약품이 지원하는 자선기금과 함께 이주아동 지원사업 기관인 안산 시외국인주민센터의 '샘뜰' 엔나의 집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침밥상의 로망, 국·찌개 후루룩~

도전! 출근 전 국물요리

애호박 송송 넣은 순두부국 볶음밥과 찰떡궁합 달걀국 밥 위에 쓱쓱 강된장찌개…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 '군침'

매년 새해 계획 중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 챙기기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기본. 그중에서도 '아침밥'은 보약과도 같다.

파워블로거 '다소마미'와 푸드스타일리스트 '요리해라'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과 찌개'(그리고 책)를 통해 입안이 깔깔한 아침,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려주는 국물 요리를 소개했다. 넉넉한 국물에 건더기 떠먹는 재미가 있는 메뉴부터 자작하게 조려내 밥 위에 얹어 쓱쓱 비벼 먹는 반찬 대용의 찌개까지 다양하다.

/서지은기자 sje@metroseoul.co.kr

◆순두부 맑은국

순두부로 맑게 끓인 국은 아침식사 대용으로 그만이다. 시간이 없을 때 후다닥 만들어 먹는 건강식이기도 하다. 애호박을 넣어 달콤함을 살리고 팽이버섯을 썰어 넣어 쫄깃한 식감까지 더하면 완성.

재료 애호박 3분의 1개, 순두부 1봉, 팽이버섯 3분의 1봉, 대파 10cm, 멸치·다시마 육수 4컵

- 양념 새우젓 0.5큰술, 고운 소금 약간

- 만들기 ①애호박은 반달로, 팽이버섯은 잘게 썰고 청양고추는 다진다. ②멸치·다시마 육수를 끓이다 애호박을 넣는다. ③순두부를 수저로 2~3등분해 떠 넣는다. ④끓어오르면 팽이버섯과 새우젓·대파·청양고추를 곁들인 뒤 고운 소금으로 간을 한다.

◆달걀국

담백한 국을 맛이 일품인 달걀국은 멸치·다시마 육수만 있으면 10분 안에 끓일 수 있다. 볶음밥이나 덮밥에 곁들이는 국으로도, 바쁜 아침 꼭 먹힌 속을 따뜻하게 달래주기에도 좋다.

재료 달걀 3개, 부추 20g, 멸치·다시마 육수 5컵

양념 소금 약간, 참치액 0.5큰술, 후춧가루 약간

- 만들기 ①냄비에 멸치·다시마 육수를 붓고 끓이다 참치액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②끓어오르면 불을 줄여 풀어 놓은 달걀물을 냄비 가장자리에 흘리듯 붓고 젓가락으로 가볍게 젓는다. ③후춧가루를 넣고 송송 썬 부추를 넣어 마무리한다.

◆강된장찌개

칼칼한 맛이 일품인 강된장찌개는 된장의 깊고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잘 지은 밥만 있으면 별다른 반찬도 필요 없다.

- 재료 쇠고기 우둔살 100g, 새우 50g, 표고버섯 2개, 두부 4분의 1모, 양파 2분의 1개, 청양고추 1개, 대파 10cm, 멸치·다시마 육수 1컵

- 양념 참기름 1큰술, 된장 3큰술, 고추장 0.5큰술, 꿀 1큰술

- 만들기 ①두부·양파·청양고추·대파는 작게 깍둑 썰어둔다. ②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양념에 버무린 쇠고기·새우·표고버섯을 달달 볶는다. ③멸치·다시마 육수와 된장·고추장·꿀을 넣고 끓이다 나머지 재료를 넣고 자작하게 졸인다.

홈플러스 8일까지 '건강 먹거리 대전'

홈플러스는 8일까지 전국 131개 점포에서 '새해맞이 건강 먹거리 대전' 행사를 열고 수삼, 블루베리, 유기농 죽전란 등을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흡연자 '민폐 냄새' 어찌하오리

'비타민트' 씹으면 구취억제 스프레이 피죤 뿌려 옷 탈취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100㎡ 이상의 영업소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음식점 내부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금연법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안이다. 간접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과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평생받을 정에 동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에서만 흡연해야 한다.

또 옷이나 손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는 비흡연자들에게 거부감을 전해줄 수 있으니 담배 냄새를 없애주는 아이템을 소지해 흡연 후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좋다.

대화를 할 때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면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흡연 후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없애주는 아이템으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보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메디카코리아의 씹어 먹는 비타민 비타민트(VITAMINT)는 영국산 비타민 C·독일산 비타민 B2·녹차 추출물·자일리톨 등이 고루 함유된 구어블 비타민이다. 항산화 효과와 항균 작용을 하는 카테킨이 함유돼 있어 구취 유발물질 생성 억제, 플라크 형성 억제, 잇몸 염증이나 치주염 예방 등 구강 건강에 효과적이다.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 냄새가 자연스럽게 옷과 손에 밴다. 옷에 배거나 손에서 나는 담배 냄새는 비흡연자에게는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탈취제 등 담배 냄새를 없애주는 제품을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다.

'스프레이 피죤 프리미엄'은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향의 로맨틱 로즈향과 상쾌하고 화사한 향인 상쾌한 허브향 2종으로 구성됐다. 강력 탈취 성분이 함유돼 있어 몸에 배인 담배 냄새를 없애는 데 제격이다.

/정의정기자

웅진플레이도시 복주머니서 경품 펑펑

4주년 기념 3만명에 선물 다음달까지 '스노우파티'도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질내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오는 2월 말까지 '윈터 스노우 파티'를 진행한다. 또 오픈 4주년 경품 이벤트와 선물 증정 행사도 마련했다.

◆사이판 여행권 등 탐나는 경품

웅진플레이도시는 오픈 4주년을 맞아 고객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풍성한 경품 이벤트 '윈터 바캉스 경품 대잔치'를 준비했다. 현장 매표소에서 복주머니 스크래치 쿠폰을 받으면 바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이판 3인 가족 여행권,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스파 3인 가족 연간 이용권 등 총 3만 명의 고객에게 풍성한 경품이 증정된다.

또 웅진플레이도시는 워터파크&스파 3·4인 가족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4주년 기념 미니 시계를 제공한다.

◆윈터 스노우 파티, 하얀 눈과 함께하는 이색 겨울 축제

웅진플레이도시는 이와 함께 내달 말까지 하얀 눈과 겨울을 테마로 한 윈터 스노우 파티를 선보인다.

먼저 스파존에서는 한방스파와 화이트 버블스파·초콜릿을 테마로 한 스파 등이 준비된다. 또 스노우파크에서는 겨울 놀이의 백미인 눈썰매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3인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 눈썰매장과 어린이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키즈 눈썰매장, 짜릿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부메랑 눈썰매장 등이 운영되며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비료 눈썰매장도 새롭게 오픈됐다.

눈과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눈놀이 체험장과 민속놀이 체험장도 마련되며 눈사람과 펭귄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 스노우 캐릭터 쇼&퍼레이드와 겨울과 새해를 테마로 한 환상적인 마술쇼도 펼쳐진다.

게다가 웅진플레이도시는 윈터 스노우 파티를 진행하며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문의 1577-5773

/황재용기자

데뷔 3년째를 맞은 5인조 걸그룹 크레용팝. 사진 왼쪽부터 금미, 소율, 엘린, 초아, 웨이

우리 음악적 성장 한번 들어보실래요

'빠빠빠'로 국민걸그룹 등극

크레용팝

2013년 '빠빠빠'를 통해 국민걸그룹으로 떠오른 크레용팝이 어느덧 데뷔 3년차가 됐다.

국민 걸그룹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빠빠빠'의 열풍으로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에 '1000 5기통 댄스', '000 빠빠빠' 등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올라오며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대세로 떠오른 크레용팝이 2014년 한 걸음 도약할 것을 예고했다.

180도 다른 스타일 고민
기회된다면 발라드 실험
콘서트 통해 팔색조 매력
|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

"

◆ 벼랑 끝에서 국민 걸그룹으로

지난 2012년 7월 데뷔한 크레용팝은 세터데이 나이트', 범범 '댄싱 퀸'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하며 1년간 무명 시절을 겪었다.

"데뷔 후 1년 동안 세 번의 음반 발표를 했는데 처음 기대와 달리 반응이 없어서 이런 활동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음악방송 출연도 못 했고, 소속사와 제작가 신인이라서 더욱 힘들었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결국 빛을 발했다. '빠빠빠'가 대박이 난 것이다. 헬멧을 착용하고 추는 우스꽝스러운 개다리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각종 커뮤니티에 패러디 영상을 낳으며 급속도로 화제를 모았다.

"어느 날부턴가 순위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차트 10위권에 입성했을 때가 돼서야 뭔가 실감했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동안의 과정들이 떠올라서 공클하기도 했어요. 1위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소리를 내질렀죠.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 몰라요."

To 메트로 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사랑~
크레용팝♡

◆ 성공 비결 팬과 소통, 삼겹살 번개?

크레용팝은 길거리 공연으로 자신을 알리며 기존 걸그룹과 달리 팬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 걸그룹으로 떠올랐지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초심을 지키고 있다. 자신을 보기 위해 온 팬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는 악수회는 물론 한 남성 팬의 의견을 반영해 '즉방 번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소소한 이벤트도 좋지만 팬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크레용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콘서트를 많이 진행하고 싶어요. 번개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삼겹살 번개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멤버들이 삼겹살에 빠졌어요. (웃음)"

◆ 2014년 퍼포먼스+음악성 예고

'빠빠빠'에 이어 크리스마스 시즌송 '꾸리스마스'로 2013년을 마무리한 크레용팝은 올해 2월 새 음반을 준비하고 있다.

"독특한 콘셉트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규앨범 발매와 우리만의 음악적인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퍼포먼스를 선택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스타일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발라드와 유닛 등 개인 활동도 하고 싶어요."

지난해 2013 MAMA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한 이들은 올해 한 걸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기회가 된다면 예능과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지만 가수로서 무대에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2013 MAMA에서 여자신인상을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여자그룹상을 받고 싶어요."

지난해 국민 걸그룹으로 성장한 크레용팝이 올해 2월 새 앨범 발표와 함께 가요계에 또다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성은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미등화재판드래가엘 디자인/박은지

star bag

한터차트 솔로 유일 5위권

JYJ **김재중**이 한터차트 가수 어워즈에서 솔로 가수로는 유일하게 5위권 안에 안착했다.

소속사는 2일 "김재중이 한터차트가 지난해 음반 판매량을 집계해 발표한 '2013 싱어 어워즈'에서 4위를 차지했다. 솔로로는 유일하게 5위권 안에 진입하는 저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중은 4일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투어 첫 무대를 연다.

'우결' 새 커플로 합류한다

2PM **우영**이 **박세영**과 MBC '우리 결혼했어요 4'(이하 '우결')에 새로운 커플로 합류한다.

방송 관계자는 2일 "우영과 박세영이 샤이니 태민과 에이핑크 나은 커플에 이어 새로운 가상 부부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PM 멤버가 '우결'에 합류하는 것은 닉쿤, 택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우영과 박세영은 2일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첫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대신 '패션킬라'

FT아일랜드 **이재진**이 빙판길 부상을 당한 멤버 이홍기의 후임으로 스타일리스트 경연 프로그램인 온스타일 '패션킬라'에 합류한다.

온스타일은 2일 "FT아일랜드에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진이 4일 방송될 3회부터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홍기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1회 촬영 후 프로그램 촬영을 이어가지 못하자 이를 안타까워하던 이재진이 제작진의 후임 제안에 선뜻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쁜 남자' OST 발표

가수 **정준영**이 2일 KBS2 수목극 '예쁜 남자' OST '바부만 을' 발표했다.

이 곡은 주인공 장근석(독고마테)이 아이유(김보통)에 대해 커져가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로 정준영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정준영의 강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아메리칸 록 스타일과 애처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브리티시 팝 스타일의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응사' 배우들 "바빠도 너무 바빠"

'해태' 손호준 듀엣곡 발표 이어 드라마·영화 줄이어 출연… '칠봉이' 유연석도 마찬가지

최근 퍼져 속에 종영한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에서 활약한 출연자들이 올해 빠른 차기 행보로 드라마의 높은 인기를 이어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응사'에서 '해태'를 연기한 손호준(사진 오른쪽)이다. 3일 4인조 보컬 그룹 더 씨야와 듀엣곡 '하면 할수록'을 발표하는 데 이어 다음달에는 KBS2 새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에 출연할 예정이다.

또 현재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 출연 중인 그는 일찌기 이병재·신하균 주연의 영화 '백데지 할류까지 결정짓는 듯'을 상반기 전망위에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극중 나정(고아라)을 향해 일편단심한 '칠봉이'로 연기해 여성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유연석(왼쪽)도 쉴 틈 없이 차기작을 두 편이나 확정했다. 최근 고수·한석규·박신혜 주연의 '상의원'에 출연을 결정했고, '은밀한 유혹'에서는 임수정과 주연으로 나선다.

빙그레 역의 바로는 B1A4로 컴백해 활동을 펼친다. B1A4는 13일 두 번째 정규앨범 '후 엠 아이'를 발매한다. 2일에는 타이틀곡 '론리'의 티저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보았다.

삼천포 역의 김성균은 현재 영화 '용의자'로 관객에게 인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도:민란의 시대'에 나온다.

이밖에 주인공을 맡았던 고아라와 쓰레기 역의 정우도 '응사' 출연 후 물밀듯 쏟아지는 러브콜 속에서 차기작을 물색 중이다.

/박근현기자 bk0427@metroseoul.co.kr

아웃도어 모델 꿰찬 김우빈

SBS '상속자들'을 통해 '대세남'으로 뜬 김우빈(사진)이 요즘 톱스타들의 전유물로 통하는 아웃도어 광고 모델까지 꿰찼다.

소속사는 2일 "김우빈이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과 계약해 올해부터 새 모델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면서 "지난달 미리 발탁된 이나영과 CF 촬영은 물론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머렐은 그동안 김우빈이 보여준 남성적이고 액티브한 이미지가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를 추구하는 브랜드의 성격과 잘 맞고 젊은층에게 세련된 이미지를 적극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모델로 선정했다.

김우빈은 최근 종영한 '상속자들'에서 최영도로 분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또 스크린 데뷔작인 '친구2'에서도 안정적인 연기력을 뽐내 충무로의 기대주로 부상했다. /박근현기자 bk0427@

'진짜사나이' 제작진 "일반병사 오디션 아닌 인터뷰"

MBC '일밤-진짜사나이'(이하 '진짜사나이') 제작진이 일반병사 오디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진짜사나이' 제작진 측은 "오디션이라기보다는 특별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할 일반병사의 인터뷰를 실시해서 함께 생활관을 꾸린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진짜사나이'가 일반병사들을 오디션으로 뽑아 같은 내무반 소속인 것처럼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오디션이 아닌 방송 출연 의사가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특별 생활관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선발 과정은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고 덧붙였다. /권성준기자

박정철 6년 열애 끝 결혼 상대는 8세 연하 승무원

새해 벽두부터 연예계에 핑크빛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윤아와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가 열애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배우 박정철(사진)이 결혼 일정을 공개했다.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박정철이 오는 4월 12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결혼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 신부는 8세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이다. 소속사 측은 "예비 신부는 여성스럽고 단아한 외모를 지닌 미모의 재원"이라며 "일반인인 예비 신부와 가족들을 배려해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철은 지난 2008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펀(fun)의 전쟁-디 오리지널' 출연 중에 예비 신부를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

1부 사회는 SBS '정글의 법칙'으로 친분을 쌓은 개그맨 김병만, 2부 사회는 홍석천이 각각 맡는다.

박정철은 촬영 스케줄로 인해 신혼여행은 드라마 종방 뒤로 미뤘다. /권성준기자

다양한 보컬 담은 비… 주부 연기 이진… 상남자 포스 발산 김현중…

아이돌 변신 놀라워라

쟁쟁한 아이돌 스타들이 새해 초부터 가요계와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데뷔 10년을 맞은 동방신기와 월드스타 비는 새해 초 새 앨범을 발매하고 빅 매치를 예고했다. 전직 요정 핑클의 멤버 이진은 결혼 6년차 주부로, 야성 매력을 갖춘 SS501의 김현중은 상남자로, 박유천은 엘리트 경호원으로 변신한다.

◆ 동방신기·비 화려한 컴백

데뷔 10년차 아이돌 동방신기와 월드스타 비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와 퍼포먼스를 무기로 꺼내 들었다.

비는 2일 자신이 직접 전곡을 작사·작곡·프로듀싱한 정규 6집 '레인 이펙트'를 선보였다. 타이틀곡은 '서티 섹시'와 '라 송'으로 더블 타이틀곡을 내세웠다. 일렉트로닉에 락을 녹여낸 '서티 섹시'는 진성과 가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비의 다양한 보컬을 담아낸 곡이며, '라 송'은 비가 시도하는 새로운 장르로 힙합과 올드스쿨, 일렉트로닉 록 펑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곡이다.

동방신기는 6일 정규 7집 '텐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새 앨범은 동방신기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 '텐스'로 명명했다는 점에서 발매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타이틀곡 '섬싱'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빅밴드 쇼를 보는 듯한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무대가 연상되는 현대적인 구성의 스윙 재즈곡이다.

◆ 드라마 중심 이진·김현중·박유천

1998년 4인조 걸그룹 핑클로 가요계에 데뷔한 이진은 6년 만에 첫 주연작 MBC 일일극 '빛나는 로맨스'를 통해 폭넓은 연기를 선보인다. 지난달 23일 첫 방송된 드라마는 남편으로부터 위장 이혼을 당한 여주인공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2014년의 첫 KBS2 수목극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의 주연을 맡은 김현중이 부드러운 오빠 이미지를 벗고 상남자로 돌아온다. 오는 15일 첫 방송되는 이 드라마에서 김현중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열혈 순정남 신정태 역을 맡았다.

2004년 5인조 보이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박유천은 SBS 수목극 불패 신화를 잇는 중책을 맡았다. 박유천은 '별에서 온 그대' 후속작인 '쓰리데이즈'(가제) 촬영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첫 방송될 이 드라마에서 박유천은 엘리트 경호원을 연기한다.

/장병호기자 @metroseoul.co.kr

사진 왼쪽부터 동방신기, 비, 이진, 김현중

남성밴드 엔플라잉 데뷔 씨엔블루 성공 이어갈까

아이돌 밴드의 영역을 개척한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가 세 번째 남성 밴드 엔플라잉(사진)을 선보인다.

FNC는 2일 "엔플라잉은 틀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함으로 밴드 음악의 크로스오버를 선보이는 밴드로 메인 보컬과 기타를 담당하는 이승협, 드러머 김재현, 기타리스트 차훈, 베이시스트 권광진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FNC는 2007년 FT아일랜드와 2010년 씨엔블루를 데뷔시켜 글로벌 K-팝 스타로 성장시켰다. 엔플라잉 역시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국내 무대 데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인디 시장에서 발표한 첫 번째 싱글 '바스켓'은 오리콘 인디즈 주간차트 2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원 앤 온리' '리즌' '오 예' 등 3곡이 수록된 두 번째 싱글을 발표했다. /유순호기자

2NE1 '그리워해요' 월간차트 1위

걸그룹 2NE1이 멜론의 2013년 마지막 월간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일 "2NE1의 '그리워해요'가 씨스타 효린의 솔로곡 '너밖에 몰라', '응답하라 1994'의 OST인 성시경의 '너에게'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며 "두 번째 월드투어를 앞둔 2014년을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발표한 '그리워해요'는 음원 공개와 동시에 9개 음원사이트 정상을 석권했고 11월 마지막 주 주간차트 1위와 12월 첫째 주 주간차트 2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이 곡은 강렬한 랩과 퍼포먼스를 앞세운 힙합 그룹으로 활동해온 2NE1이 새롭게 시도한 발라드로 주목받았으며, 뮤직비디오에서는 씨엘(사진)의 누드 연기로 파격을 보였다.

연말과 연초 특별 프로그램 출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2NE1은 3월 1~2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월드투어의 막을 올린다. /장승호기자

레인보우 4인조 유닛 '섹시 끝판왕' 도전

도둑 촬영한 듯한 예고 이미지 공개…이달 말 활동 스타트

7인조 걸그룹 레인보우가 유닛으로 '섹시 끝판왕'에 도전한다.

레인보우는 성인을 공략하기 위한 섹시한 이미지를 콘셉트로 내세운 4인조 프로젝트 팀인 레인보우 블랙을 결성해 이달 말 활동을 시작한다.

소속사 DSP미디어는 이에 앞서 2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고 이미지를 공개했다.

다리와 가슴 등 멤버들의 신체 일부를 은밀히 촬영한 듯한 분위기의 사진에는 팀명인 'B.L.A.XX'가 새겨져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그러나 멤버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어 누가 레인보우 블랙의 멤버로 활동할지 팬들의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특유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한 레인보우는 2011년 깜찍·발랄함을 전면에 내세운 첫 번째 프로젝트 유닛 레인보우 픽시를 선보인 바 있다. 새 유닛 레인보우 블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관능적이고 섹시한 느낌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레인보우 블랙은 오는 6일부터 4일간 레인보우 공식 유튜브 채널에 4명의 멤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유순호기자

이들이 뜨면 공연입장권 잘 팔린다

최고의 티켓파워상에 조용필·정성화·옥주현 부문별 1위 선정

조용필·정성화·옥주현 등이 지난해 최고의 티켓 파워를 보여준 인물로 뽑혔다.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가 2013년 최고의 티켓 파워를 보여준 작품과 인물을 가리는 '2013년 골든티켓어워즈'를 선정한 결과 티켓파워상 국내 뮤지션 부문에서 조용필이, 뮤지컬 남녀배우상 부문에서 정성화와 옥주현이 각각 선정됐다.

지난해 10년 만에 낸 정규앨범 '헬로'로 전 세대에 걸친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음원차트를 '올킬'시킨 조용필은 그해 5월부터 진행한 전국투어가 인터파크 콘서트 연간 판매 랭킹 상위권에 오르며 매진에 가까운 높은 객석 점유율을 이끌어냈다.

티켓파워상 뮤지컬 남자배우상은 매년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부문으로 올해는 김준수·조승우·주원·정성화 등이 관객 투표에서 경합을 벌였으나 '레미제라블'에서 10개월간 원 캐스팅으로 열연을 펼친 정성화가 단연 티켓 판매량과 팀 간 가산점에서 앞섰다.

조용필

정성화

옥주현

'엘리자벳' '레베카' '위키드'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옥주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뮤지컬 여자배우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 연극 부문은 '아비지와 나의 홍매와 의 신구와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의 김혜자가 받았다. 해외 뮤지션 부문은 제이슨 므라즈, 클래식 부문은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선정됐다. 관객 투표 100%로 선정되는 인기상은 김준수에게 돌아갔다.

골든티켓어워즈 작품상에서는 '레미제라블'(뮤지컬 부문), '클로저'(연극 부문), '조용필 전국투어 헬로'(국내 콘서트 부문), '제이슨 므라즈 내한공연'(내한 콘서트 부문),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클래식 무용 부문), '신화 콘서트'(글로벌 공연 부문)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골든티켓어워즈'는 인터파크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24~31일 총 2만46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티켓파워상은 출연작의 판매 매수(60%)와 투표 점수(40%)를 합산한 결과다.

/박선희기자 ps0427@metroseoul.co.kr

'공 데이먼' 공유, 맷 데이먼과 만남?

'용의자' 뉴욕 프리미어 행사 참석 타진 중

'공 데이먼' 공유(사진)와 할리우드 스타 맷 데이먼의 만남이 추진 중이다.

2일 영화 '용의자'의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는 "오는 10일 북미 개봉에 앞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프리미어에 맷 데이먼을 비롯한 세계적인 스타들의 참석이 유력시된다"고 밝혔다.

원신연 감독과 공유·박희순 등 주연 배우들이 참석할 이날 행사에 할리우드 영화 '본' 시리즈로 유명한 폴 그린그래스 감독, 더그 라이먼 감독, 맷 데이먼 등이 초청받아 참석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등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액션과 빠른 전개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주연 배우 공유는 '본' 시리즈의 히어로 맷 데이먼을 연상시키는 면모로 '공 데이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맷 데이먼은 용의자 촬영 당시 특별출연 섭외 직전에 일정 문제로 출연이 불발돼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또 영화 '300'으로 큰 인기를 얻은 제라드 버틀러,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이번 행사에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용의자'는 미국과 일본·홍콩·대만·인도를 비롯해 중동과 유럽에 개봉 전 선판매됐다.

/유순호기자 suno@

'변호인' LTE급 흥행

개봉 14일만에 600만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이 역대 최고 흥행작인 '아바타'를 뛰어넘는 LTE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변호인'은 지난 1일 67만2709명을 모아 누적 관객 수 635만9552명을 기록했다. 개봉 14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변호인'은 15일 만에 600만 관객을 모은 '7번방의 선물'(총 1281만 명), 20일 만에 넘은 '광해, 왕이 된 남자'(총 1231만 명)보다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1362만 명을 동원하며 역대 12월 개봉작 중 최고 흥행이자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인 '아바타'의 17일보다도 빠른 속도로 600만 고지를 넘어서 최종 스코어에 관심을 모은다. 또 '변호인'은 '아바타'(54만2043명)가 가지고 있던 역대 1월 1일 최다 관객 동원 기록도 갈아치웠다.

'변호인'의 투자·배급사인 NEW는 "관객들의 입소문이 더해져 시간이 갈수록 흥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1월 중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개봉 3주차에 접어든 '변호인'은 70%를 웃도는 좌석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 거침없는 관객몰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사운드 오브 뮤직' 서울 상륙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유니버설아트센터서 열려

동명의 영화로 유명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이 지방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울에 상륙한다.

지난달 6~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 19~25일 부산 센텀시티 소향씨어터에서 공연을 마친 데 이어 이달 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 /극단 [illegible] 제공

2006년 공연 이후 8년 만에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국내 무대에 다시 올려지는 이 뮤지컬은 앞서 열린 지방 공연에서 거의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제작사 관계자는 "대구 공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관객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대구에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뒀다"면서 "좀처럼 흥행이 어렵기로 소문난 부산에서의 공연 역시 24~25일 티켓이 거의 매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작 영화에 대한 추억을 가진 부모 관객이 아이들과 함께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자극적인 공연이 쏟아지는 속에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문 뮤지컬이라 사랑받은 것 같다"고 지방 공연의 흥행 이유를 분석했다.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자연을 배경으로 폰 트랍가의 일곱 아이들을 돌보게 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견습수녀 마리아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도레미송'과 '에델바이스' 등 귀에 익숙한 음악들을 들려준다.

마리아 역은 가수 박기영과 소향, 뮤지컬 배우 최윤정이 번갈아 연기한다. 폰 트랍 대령 역에는 이필모·박완·김형묵이 낙점됐다. 이 밖에 끼와 재능이 넘치는 일곱 명의 아역배우들이 오디션을 통해 합류했다. 문의 (02)762-6194

/박선희기자

'찌라시…' 다음달 개봉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를 소재로 한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사진)이 다음달 개봉을 확정했다.

이 영화는 찌라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매니저 우곤(김강우)이 사설 정보지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범죄 추적극이다. 소문은 무성하지만 실체가 없는 찌라시의 세계를 제조부터 유통까지 리얼하게 담았다.

김강우를 비롯해 정진영·고창석·박성웅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한다.

/박선희기자

브라질 월드컵 승선 무한경쟁 시작됐다

홍명보호 13일 출국 해외 전훈 23명 발표…김대호·이지남 첫 발탁

2014 브라질 월드컵을 향한 홍명보호의 마지막 승선 경쟁이 펼쳐진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2일 23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13일부터 3주 동안 브라질과 미국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는 유럽과 중동 중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소속팀 일정으로 빠진 가운데 20명의 K리그와 3명의 일본 J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뽑혔다.

왼발의 달인 염기훈(수원 삼성 블루윙즈), 전북 현대 모터스의 공격수 이승기의 발탁이 가장 눈에 띈다. 염기훈은 지난해 7월 동아시안컵 이후 다시 대표팀에 이름을 올려 왼쪽 측면 날개로 뛴다. 지난해 9월 허벅지 부상으로 중도 하차했던 이승기는 새로 스트라이커로 홍 감독의 눈도장 받기에 나선다.

오른쪽 날개 고요한(FC 서울)과 김태환(성남 일화 천마), 중앙 미드필더 이명주(포항 스틸러스)는 유럽파에 밀린 설움을 이번 훈련에서 씻어낼 예정이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민수(울산 현대), 2006년 독일 월드컵에 나섰던 이호(상주 상무 피닉스)는 다시 한 번 월드컵 출전을 노린다.

포항의 김대호와 대구 FC의 이지남은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한다.

이근호(상주)와 김신욱(울산)은 원톱 스트라이커를 놓고 경쟁한다. 일본파로는 왼쪽 풀백 김진수(알비렉스 니가타), 중앙 수비수 황석호(산프레체 히로시마), 미드필더 김민우(사간 도스) 등이 뽑혔다.

13일 출국하는 대표팀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베이스캠프로 쓸 파라나주 포스두 이구아수시의 버번 카타라티스 컨벤션 리조트에서 1차 전지훈련을 치른다. 21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2차 훈련을 진행하고 다음달 3일 귀국한다. 미국 훈련 기간 동안 코스타리카(26일)·멕시코(30일)·미국(다음달 2일)과 세 차례 평가전도 치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브라질·미국 전지훈련 참가자 명단(23명)

▲GK = 정성룡(수원)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

▲DF = 김진수(니가타) 김대호(포항) 이용·강민수(이상 울산) 황석호(히로시마) 김주영(서울) 이지남(대구) 김기희(전북)

▲MF = 박종우·하대성·고요한(이상 서울) 송진형(제주) 이호(상주) 김민우(사간도스) 염기훈(수원) 박종우(부산) 이승기(전북) 이명주(포항) 김태환(성남)

▲FW = 이근호(상주) 김신욱(울산)

/연합뉴스

출국하는 분데스리가 '두 별'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의 주전 공격수 손흥민(왼쪽)과 같은 팀에서 막내선수로 뛸 류승우(오른쪽)가 연말연시를 한국에서 보내고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잡은 텍사스 WS 진출한다"

MLB닷컴 칼럼니스트 밝혀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가 붙무 기계 추신수(32·사진) 영입으로 2014시즌 3년 만에 월드시리즈(WS)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은 2일 소속 칼럼니스트 7명의 올해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아메리칸리그(AL) 서부지구를 올해 최대 격전지로 예상하면서 추신수의 소속팀 텍사스의 WS 진출 가능성을 크게 점쳤다.

필 로저스는 "AL에서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프린스 필더와 추신수가 합류한 텍사스가 WS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텍사스는 2010~2011시즌 2년 연속 WS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치는 등 삼단 후 한 차례도 정상에 서지 못했다.

라일 스펜서는 "AL 서부지구는 2014년 매우 험난할 것"이라며 "텍사스는 애드리안 벨트레 앞에서 타오는 필더가 추신수가 만들어놓은 득점 기회를 강공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존 바우만 역시 AL 서부지구를 최대 격전지로 꼽으면서 "텍사스는 필더와 출다 자 추신수를 영입해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중심타선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유성호기자 pss@

기성용·지동원 동시 출격…팀은 패배

처음으로 동반 출격한 기성용(25)과 지동원(23·이상 선덜랜드 AFC)의 정상적인 호흡에도 팀 패배는 막지 못했다.

선덜랜드는 2일 영국 선덜랜드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이스턴빌라 FC와의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이날 경기를 승리할 경우 리그 최하위를 탈출할 수도 있었던 선덜랜드는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이스턴빌라전에 임했다. 이 기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지동원이었다. 거스 포예트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지동원은 여러 차례 슈팅 기회를 잡았으나 골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오랜 실전 경험 부족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다.

기성용 역시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 그라운드를 누볐다. /정세윤기자

울산 모비스, KCC 꺾고 홈 7연승

울산 모비스가 홈 7연승에 힘입어 선두 추격에 불을 댕겼다.

모비스는 2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전주 KCC를 89-84로 물리쳤다. 경기 종료 3분 19초를 남기고 80-80으로 팽팽했던 이날 승부는 문태영의 골밑 슛과 함지훈의 미들슛이 경기 막판에 잇따라 터져 모비스가 힘겹게 승리했다. 홈에서 7연승을 달린 모비스는 21승9패를 기록, 공동 선두 창원 LG·서울 SK(이상 21승8패)와의 승차를 0.5경기로 좁혔다. /이국현기자

프로농구 전적 2일

팀	1Q	2Q	3Q	4Q	합계
모비스	20	23	26	20	89
KCC	17	28	16	22	84
삼성생명	18	11	17	24	70
국민은행	13	15	13	18	59

프로배구 전적 2일

러시앤캐시	3	1	한국전력

러시아 잇단 테러 발생에 올림픽 참가선수 "불안해"

러시아 전역에 테러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스노보드에서 올림픽 금메달 두 개를 목에 건 세스 웨스콧(미국)이 소치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더라도 개막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고 2일 보도했다.

웨스콧은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걱정이 많이 된다"며 "러시아는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는 나라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호기자

윌리엄스 "4강쯤이야" 2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단식 3회전에서 도미니카 시불코바(슬로바키아)를 2-0으로 꺾은 세계 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4강 진출을 확정하며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생뚱한 표석, 엉뚱한 지명들

권기봉의 도시산책 <63>

인천 도원역에서 내려 걸음 걷다 보면 회자로 '한국철도 최초 기공지'라 새겨진 표석을 만날 수 있다. 지난 1897년 건설하기 시작해 2년 뒤 개통한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기공식 터를 알리는 표석이다. 그런데 사실 그곳은 경인선 기공식이 열린 곳이 아니다. 표석에서 동북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쇠뿔고개 언저리가 정확한 기공식 현장(사진)이다.

그러고 보면 인천에는 잘못된 위치에 세워진 표석뿐만 아니라 엉뚱한 지명들도 적지 않다. 도원역 남쪽의 도원동 일대를 걷다 보면 '도산 1길'이나 '도산 2길' 등의 거리명이 적힌 이정표를 볼 수 있다. '도산'은 일제강점기 때 이 동네의 이름이었던 '모모야마(桃山)'를 단순히 한글화한 결과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송도'도 비슷한 경우다. 인천일보 주필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조우성 선생에 따르면 송도 일대는 애당초 '옥련리'라 불렸다고 한다. 그랬던 것을 지난 1936년 일제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일본 군함 '송도호'의 이름을 따 '송도정'으로 개정해 전의를 불태웠다는 것이다.

물론 해방 직후인 1945년 송도정이 '옥련동'으로 되돌려진 적은 있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연수구청이 신도시 이름으로 '송도'를 되살려 참 아이로니컬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물론 해방 뒤라고 모든 지명을 바꾸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언뜻 예도 여자 이름 속에 '아들 자' 자나 남자 이름 속에 '수컷 웅' 자 등 일제의 흔적들이 여러 방식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침략의 역사가 녹아있는 이름이라면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유독 인천에 생뚱맞은 자리에 세워진 표석이 많고 일제의 지명마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이유,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1/3 金 일출시각 07:47 일몰시각 17: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서울 [illegible] · 수원 [illegible] · 대전 [illegible] · 전주 [illegible] · 광주 [illegible] · 제주 [illegible] · 강릉 [illegible] · 울릉도 4/8 · 대구 [illegible] · 포항 1/12 · 울산 [illegible] · 부산 [illegible]

술을 마실 때는 물과 충분히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또 빈속에 마시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	
감기가능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7			2	
			4		8	7		
5			2					4
	9					4	5	2
		2		1		3		
6	5	3					1	
1					3			6
		8	6		1			
	3			8				

				4				
	3		5		2		1	
		4	3		1	9		
5	9	6				7	2	4
	4	8				5	3	
3	1	7				6	8	9
		5	7		3	8		
	8		4		6		9	
				8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믹스처 (마플의 에디션 리미티드 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saw626.com

홀로 되신 엄마 스트레스 심각 문화센터 등에서 공부 도움 돼

우주만큼 여자 42년 6월 2일 음력 새벽

Q 어렵게 홀해 살고 계시는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가 무척 심하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엄마의 노년의 삶이 어떠실까요?

A 외적으로는 자긍심의 주체가 강하니 체면은 우월하고 스스로 만드는 근심의 기운이 있습니다.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어서 조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권해보세요. 조그마한 식당도 좋고요. 아니면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을 통해 배움의 길을 적극 주선해보세요. 공부와 인연이 있으니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외로움을 줄이시고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더라도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주로는 유화유토(柔火柔土)를 품씩기 있고 화로기 없[illegible]하여 사고력에 재능이 있고 혼자 하실 수 있는 기능은 뛰어납니다. 종교와는 무관하니 취미로 사주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인 친구와 가게 재계약 경쟁 힘든 운세이니 다른 길 찾아야

hynn 남자 52년 5월 12일 양력 오전 1시

Q 경기도의 조그만 유원지에서 간독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인의 친구가 재계약 경쟁이 붙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사주 팔자상 재계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되면 당장 죽을 것처럼 힘기 어렵지만 운이라는 것은 1년마다 들어오는 세운이 있고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 있습니다. 운이 바뀔 때는 인생의 전환기가 될 수 있어 운이 언제부터는 호전되다 그때까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잘될 거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역학을 하는 업을 활인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당장의 계약 성사 여부인데 희망적인 대답을 드리기 힘드네요. 계약이 잘되려면 사주에서 문서의 운이 관인상생(官印相生)으로 가야 하는데 문서운이 사지(死地)에 놓여있고 외극세군(외剋歲君)하고 있어 어려운 운세이니 재계약이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게재하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3일 (음 12월 3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난처한 부탁받고 고민하는 하루. 60년생 자금 부족하니 큰 문제 아니다. 72년생 배우자 배려에 신경 써라. 84년생 확실한 입장 표명에 만인이 반긴다.

소 49년생 잠시 쌓은 일은 빛을 본다. 61년생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 73년생 물고기가 큰 강을 만난 격이다. 85년생 목적은 달성하나 작은 실수 조심하라.

호랑이 50년생 변수가 있어도 지킬 것은 지켜라. 62년생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린다. 74년생 동남쪽에서 온 사람은 일단 경계할 것. 86년생 운기가 일러 매사 순조롭다.

토끼 51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온다. 63년생 일뿐 많은 일엔 눈길 주지 마라. 75년생 멀리서 희소식 온다. 87년생 오늘 만난 이성은 동반자로 진지하게 생각하라.

용 52년생 [illegible] 흔들리지 마라. 64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76년생 잠진도 지나치면 욕이 된다. 88년생 조직의 마당에 역할에 박수가 쏟아진다.

뱀 53년생 지나 데에 극진한 대접받는다. 65년생 수익 자랑 말고 자들 줄여라. 77년생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다. 89년생 애매한 일은 상사에게 도움 요청하라.

말 42년생 할 말이 있어도 참아라. 54년생 독단적인 판단은 후폭풍 거세다. 66년생 수익이 안정되니까 운도 마음도 편안. 78년생 생각지도 못한 기쁜 일 생긴다.

양 43년생 중용을 지켜야 손해가 없다. 55년생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면 망신 자초. 67년생 유흥보다는 맺것을 지키는 게 좋다. 79년생 술 취해 늦은 귀가 피하라.

원숭이 44년생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 비워라. 56년생 예상치 못한 길운 생긴다. 68년생 일이 잘 풀릴 때 더욱 겸손할 것. 80년생 좋은 일 있다고 마냥 즐기지 마라.

닭 45년생 막힌 일은 해결된다. 57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69년생 재운이 트여 염소 팔아 소를 사는 격이다. 81년생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마라.

개 46년생 귀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58년생 분수 지키면 손해 없다. 70년생 가문에 인공이 될 경사 생긴다. 82년생 귀인을 만나 인생 청사진 새로 그린다.

돼지 47년생 속마음 드러내면 손해 본다. 59년생 술을 줄이고 가정 화목에 신경 써라. 71년생 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83년생 구름 속의 달이다. 자중하라.